

- 02 **청운동 사계 | 겨울 나무 · 이정호**
- 03 **발행인 편지 | 정대련**  
기쁨으로 채운 2025의 나날들, 평화롭게 훌훌 떠나보내시길
- 04 **햇이슈 | 이지운**  
창립 25주년 기념식과 제12차 108인 선정식 수행 · 교육 · 봉사의 길을 다시 묻다
- 08 **지금 여기 우바이 | 윤정로**  
108인회 가을 사찰 순례  
가을빛에 물든 영주의 유서 깊은 산사 세 곳
- 11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 윤희진**  
망월사와 춘성 스님  
천 년을 이어온 간절함, 달을 바라보다
- 14 **함께 해 즐거웠어요 | 원유자**  
시로 그림책 만들기  
내 가슴에 들어와 불기둥이 된 너
- 16 **우리 차수를 소개합니다 | 최연지**  
불교여성개발원의 오늘을 잇는 힘, 6~11차 차수  
다양함 속에서 하나로 함께한 연대

- 19 **아기 부처 엄마 보살 | 이화선**  
정목 스님과 함께한 정각사의 하루  
영108인, 동심으로 법심을 나누다
- 22 **불교와 여성 | 조민기**  
의상의 첫 우바이 제자, 선묘 남자  
온몸을 던져 불사를 돕다
- 24 **사찰 문화 배워봅시다 | 이예지**  
구조와 색, 소리로 가르침을 전하는 깨달음의 공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가
- 26 **나는 여기서 기도한다 | 한정화**  
세상과 나를 잇는 가장 깊고 고요한 통로  
백담사 봉정암
- 28 **개발원 소식**
- 31 **산하기관 센터 소식**
- 36 **회원동정**
- 38 **12차 108인 명단**
- 39 **재정 동참 현황**



## 우바이예찬

### 2025년 통권 95호

발행인 정대련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편집위원장 남혜경  
 편집위원 김영희, 윤희진, 이예지, 조민기, 최연지, 이지운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주소 03047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0길 20(청운동 103번지)  
 전화 02-722-2101~2 팩스 0502-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E-mail wisdom2007@daum.net

●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사진 : 조현숙(10차 108인, 전 불교사진협회 회장)

고요의 절정,  
 설경에 잠긴 구룡사



## 겨울 나무

겨울이다

춥다

한여름 무성하던 짙은 초록의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떨어지고  
양상하게 남은 검은색 가지 사이로  
유리빛 파란 하늘이 가득하다

아무것도 없어  
부족한 것 없는  
맑고 찬 겨울날  
아름답다

글 · 사진 이정호\_ 2차 108인

## 기쁨으로 채운 2025의 나날들, 평화롭게 훌훌 떠나보내시길

어느덧 2025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도무지 식지 않을 듯 쏟아붓던 한여름 폭염이 언제였을까. 첫눈이 펄펄 온 대지를 흰빛으로 가리고 영하의 얼음길이 익숙한 날들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바쁜 일 년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창립 24주년 기념일에 원장 취임식을 하고, 2025년 11월 창립 25주년 기념일에 제12차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하기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의 수많은 활동을 만나고 동참하였습니다. 여성불자108인회 프로그램과 1차부터 11차에 이르는 각각 차수 모임,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교정교회센터, 다문화행복가족센터, 명상리더십센터, 불교여성연구소, 생명존중운동본부, 위즈덤합창단, 지혜아카데미, 날란다독서모임과 금강경독송기도모임, 수익사업단 등 여러 이름 아래, 여성불자 108인들은 하나같이 나를 잊고 너를 위하고 우리가 되어 부처님 일을 하며 수행·교육·봉사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쪽 향해 걸었더니 문득 북방은 사라지고 별빛만 남으리니. 불법 세계 장엄한 포인세티아 화려한 붉은 빛이 참 빛인가 싶더니 오직 이름만 붉으리니. 일 년 삼백육십오 일이 지나긴 줄 알았더니 시간이라 짐짓 지은 이름일 뿐일러니. 처처에 펼친 불법행이 가득한 불교여성광장에 언제고 온 적 없던 한 해가 어느새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 마지막에 이르러, 오직 부처님 마음으로 동참, 봉사해 주신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 여성불자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바이예찬」 사계절을 늘 새로운 모습으로 열어 주신 남혜경 편집위원장님과 김영희·윤효진·이예지·조민기·최연지·이지윤 편집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청사의 해 2025년 한 아름 기쁨으로 채우시고, 평화로움 속에 훌훌 떠나보내소서.

나무 금강반야바라밀~\_()\_ 나무 마하반야바라밀~\_()\_ 

## 창립 25주년 기념식과 제12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

# 수행·교육·봉사의 길을 다시 묻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굿모닝시티 9층 스카이홀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과 제12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을 봉행하였다. 2000년 조계종 포교원 산하 단체로 출범한 이후 25년 동안 축적해 온 수행과 실천의 궤적을 성찰하고, 여성 불자 전문인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

기념식은 ‘육법공양’으로 문을 열었다. 공양의 장엄한 울림은 지난 25년의 시간 속에서 이어져 온 보시와 서원의 의미를 현재의 자리로 불러왔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을 통해 공동체는 다시 한 번 불·법·승에 귀의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어 상영된 25주년 축하영상은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불교여성개발원의 25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는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 전문인 공동체로 성장해 온 과정을 수행·교육·봉사 사회적 실천의 흐름 속에서 조망하였다.

정대련 원장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평등과 동행의 가치를 바탕으로 여성 불자 지도자 양성, 불교적 생활 수행 문화 확산, 불법의 사회적 실천을 지속해 왔다”고 밝히며, 현재 1,300여 명의 전문인 여성불자가 각자





의 삶의 현장에서 불법을 회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행이란 관념적 상태가 아니다. 일상 속 관계와 노동, 봉사의 현장에서 구현되는 실천이라는 관점이 인사말의 요지였다.

이어 창립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신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의 축사가 있었다. 광용 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의 25년을 “여성 불자들이 스스로를 등불 삼아 공동체를 비추어 온 역사”로 규정하며, 여성불자108인의 실천이 불교계 내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의미 있는 울림을 만들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광용 스님은 여성 불자의 역할을 “자비와 지혜를 사회의 언어로 번역해 내는 실천”으로 설명하며, 여성 불자 공동체가 지닌 사회적 책무를 환기하였다.

### 전문성과 신행을 삶으로 체현한 리더, 여성불자 108인 선정

2부 행사로 진행된 제12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문성을 축적해 온 여성 불자들이 수행과 신행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 온 궂적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경제, 교육·연구, 문화예술, 보건의료, 법률, 사회단체, 정치·행정, 언론·출판, 포교·신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전문가들이 추천과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이영주 여성불자108인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08인회가 전문성과 신행을 아우르는 여성 리더 공동체로서, 시대 변화 속에서도 불법을 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류지영 상임감사는 축사를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삶의 신조를 언급하며, 불교여성개발원이 수행과 봉사의 현장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108인 선정식 이후 신입회원 가운데 3인과 인터뷰하여 오늘의 사회에서 자신의 직역에서 불교적 삶을 산다는 의미와 108인으로 선정됨의 의미를 들었다.



국제코치연맹(ICF) 인증 프로페셔널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주 대표는 코칭 현장에서의 실천을 불교의 자비행과 연결해 설명하였다. 사람의 말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듣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곧 불교적 수행이라고 말한다. 경청과 질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곧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에게 이번 선정의 의미는 성취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이어온 수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하라는 요청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건축사로 활동하는 손은정 대표는 불교여성개발원과의 인연을 통해 개인 수행에 머물러 있던 신행이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되었다고 전한다. 건축 현장과 교육의 자리에서 그는 공간이 사람의 삶과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왔다. 지역 건축문화행사와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시간과 노동을 보시로 내어놓는 경험은, 봉사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 속 수행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게 했다. 손 대표에게 불교적 삶이란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연꽃처럼 피어나는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공간디자인과 ESG, 생태미학을 연구해 온 조정원 대표는 이번 선정이 “조용히 버텨온 시간들에 대한 위로이자, 더 바르게 살아가라는 요청”으로 다가왔다고 말한다. 그는 여성 사업가로서 현장에서 겪어온 불안과 압박, 그 속에서도 불자로 살고자 애써온 시간을 돌아보며, 수행은 특별한 형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기준이라고 말한다. 약자를 먼저 고려하는 공간 설계, 현실을 함께 짚어지는 ESG 실천, 후배 여성들과의 연대는 그가 일상에서 이어가는 불교적 실천의 구체적 모습이다.



각기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은 ‘전문성의 축적과 불교적 삶의 태도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공유하였다. 교육 현장에서는 배움의 존엄을 지키는 실천으로,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감각과 의미를 깨우는 표현으로, 사회단체와 행정의 영역에서는 돌봄과 정의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불법을 회향하고 있었다.

## 26명의 학생과 수행자의 배움과 수행을 지지하는 지혜장학금

이 날 기념식에서는 제10회 지혜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지혜장학금은 학업과 수행의 길을 걷는 청소년·청년 불자들에게 실질적 기반을 제공해 온 불교여성개발원의 대표적 회향 사업이다. 이번 장학금은 총 26명의 장학생에게 수여되었으며, 대학생·대학원생·청소년·수행자 등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다음 세대가 고루 포함되었다. 장학금 전달은 불교여성개발원이 말로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장학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다음 세대의 배움과 수행을 실제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지혜장학금이 개인의 삶과 수행에 주는 의미를 세 명의 지혜장학생으로부터 들었다. 한림성심대학교 김예나 학생은 장학금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을 마련해 주었고, 불교동아리 활동을 통해 체득한 ‘알아차림’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정근규 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분명히 체감했으며, 명상 수행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학업과



삶을 지탱해 왔다고 말한다.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전공 석사 과정의 보선 스님은 이번 장학금을 수행과 교학을 함께 성숙시키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며, 불교 사상의 회통적 지혜를 현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사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세 장학생의 이야기는 지혜장학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수행과 학문, 사회적 책임을 잇는 연대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 축하공연, 소리로 이어진 서원

행사의 마지막은 축하공연으로 장식되었다. 국악인 민혜성(12차 108인)의 소리는 전통의 호흡 속에 수행의 정서를 담아냈고, 소프라노 강혜명(12차 108인)의 무대는 성악의 언어로 자비와 기원의 정서를 확장하였다. 위즈덤합창단의 합창 공연은 공동체적 발성이 만들어내는 화음을 통해, 개인의 수행이 집단적 서원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창립 25주년 기념식과 제12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은 오랜 역사를 기념함과 동시에, 불교여성개발원의 미래 지향을 성찰하는 자리였다. 수행·교육·봉사라는 세 축은 여전히 유효했으며, 여성 불자 전문인들의 삶을 통해 그 의미는 동시대적 언어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25년의 시간 위에 놓인 성찰은, 다음 25년을 향한 서원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



## 108인회 가을 사찰순례

# 가을빛에 물든 영주의 유서 깊은 산사 세 곳

지난 10월 25일, 여성불자 108인회에서 주관하는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사찰순례는 매년 봄, 가을의 정기행사로, 이번에는 경상북도 영주 지역의 성혈사와 부석사, 소수서원을 순례하는 일정이다. 영주까지는 거리가 멀고 유서 깊은 장소를 세 곳이나 다녀오는 만만치 않은 일정이라, 이른 새벽 6시 30분 조계사에서 출발하여 여정에 올랐다. 이영주 회장님이 챙겨주신 김밥과 간식은 든든한 아침 식사였다. 대구와 구미에서 여섯 분이, 영월에서는 한 부부가 자차로 운전해서 오시기로 했다.

### 천년 고찰, 소백산 성혈사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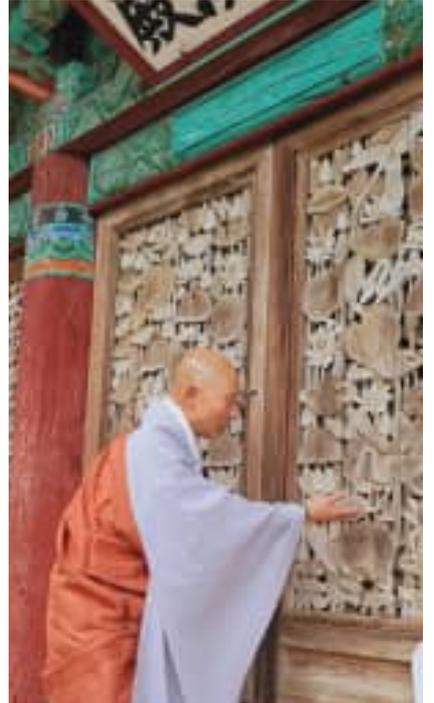
4시간을 달려 첫 번째 목적지에서 내리니, 성혈사 이정표와 함께 너른 사과밭이 눈앞에 펼쳐졌다. 몇 분은 마중 나오신 거사님과 도반님 차로 가고, 남은 분들은 걸어서 올라갔다. 연신 이마의 땀을 닦아야 하는 녹록지 않은 1.5킬로미터의 오르막길이었지만,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린 사과밭 사잇길은 잊지 못할 풍경이었다.

둔덕 위에 세워진 '소백산 성혈사' 일주문을 옆으로 지나고, 알록달록 곱게 피어 있는 꽃에 감탄하며 계단 위의 누각을 통과하니 대웅전이다. 대웅전 참배 후, 주지 진성 스님께서 친히 경내를 안내해 주셨다. 통일신라 시대에 개창되었다는 성혈사는 비탈진 지형을 따라 자연스레 전각이 배치되었다. 가장 오래된 전각은 나한



전으로, 1553년(명종 8년)에 지어졌고 1634년(인조 12년)에 중창되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물고기, 게, 개구리, 동자상, 연꽃, 모란꽃, 두루미 등이 뛰어난 솜씨로 조각된 앞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살로 유명하다. 커다란 붓을 잡고 계신 산신각의 산신은 학운과 시험 기도에 영험하다고 한다. 대웅전 뒤로 봉긋이 솟은 소나무 원림, 전각을 바라보는 한 마리 새 형상의 나뭇가지와 늙름한 주목들도 가람을 수호한다.

고즈넉한 가람을 구석구석 구경한 후에는 영월에서 정성껏 손수 만들어 오신 찰밥과 메밀배추전, 이영주 회장님의 즉석 된장찌개, 진성 스님께서 손수 채취했다가 내어주신 송이버섯 맑은국으로 맛있고 풍성한 점심 공양을 하였다. 은사스님을 모시면서 혼자서 성혈사를 가꾸시느라 쉴 틈 없이 부지런하신 자그마한 체구의 진성 스님, 그 편안한 얼굴과 겸손하신 모습에 감동하며 오래오래 강녕하시길 빈다.



### 시간을 품은 서원, 소수서원으로 가다

두 번째 목적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에 포함된 소수서원이다. 1542년(중종 37년) 이곳 출신의 성리학자 안향을 배향하기 위한 사당과 그 동쪽에 '백운동서원'이 세워졌고, 이후 풍기 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의 노력으로 1550년(명종 5년) '소수서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최초의 사액서원, 즉 조정에서 현판을 내려 정통성을 인정하고 재정도 지원하는 서원이 되었다. 서원 입구에 있는 당간지주는 이곳이 원래 통일신라 시대의 '숙수사' 절터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소수서원에서 우리는 선비문화체험에 참여하기로 해, 도포와 유건으로 복장을 갖추고 명륜당 마루에 올라 우리나라의 책 만들기 전통 방식인 5침안정법(등 쪽에 5개의 구멍을 뚫고 실로 꿰매는 방식) 제본을 해보았다. 소



수서원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아름답리 소나무 숲 산책길,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여러 문화재를 보유한 박물관과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전통 마을인 선비촌이 연결되어 있지만, 아쉬움을 남긴 채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다.

###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 부석사의 숨결 속으로

마지막 목적지 부석사는 통일신라 문무왕의 왕명으로 676년 의상대사가 세웠고,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사찰이자 명승, 특히 단풍 명소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다.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빼곡하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은행나무길에 오가는 참배객들이 무척 많았는데, 일주문을 지나니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 기념행사로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현대악회와 음악회로 시끌벅적하고 전각과 마당이 모두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30명이 넘는 우리가 단체로 참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참배한 후 관음전에 모이기로 했고, 행사에 분주하신 스님들을 뵙기는 언감생심이었다.

무량수전의 위엄있고 자비로우신 아미타여래(무량수불)상에 참배하고, 잠깐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첩첩산자락의 풍광을 즐겼다. 의상 대사를 연모한 선묘 낭자의 창건 설화가 깃든 뜬 바위(부석)도 보았지만, 부석사의 진면목과 운치를 충분히 음미하기에는 짧고 아쉬운 시간이었다.

영주에 들어서면서부터 내내 사과나무를 보았는데, 부석사 입구에는 줄지어 있는 가게마다 빨간 사과들이 상자에 가득가득 담겨 있었고, 내려오는 길에는 도반님들 팔에 사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요즈음 찾기 힘든 추억의 품종, 새콤달콤 홍옥도 있어 무척 반가웠다. 영주에 계신 도반님이 소개해 준 맛집에서 푸짐한 복지로 저녁 공양을 하고, 손 큰 영월 도반님 덕분에 점심 공양 후에도 잔뜩 남은 찰밥을 나눠 가진 후에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다. 뜻깊고 멋진 곳들을 순례할 수 있도록 행사를 주관하신 이영주 회장님, 실무를 챙기신 조정숙 사무국장님, 사비로 보시금까지 준비하신 정대련 원장님, 함께 하신 도반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순례를 기다린다. 🍎



# 천 년을 이어온 간절함, 달을 바라보다

## 망월사와 춘성 스님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편리함’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슬리퍼 차림으로 집 앞 편의 시설을 누리는 ‘슬세권’, 프랜차이즈 커피를 손쉽게 즐기는 ‘스세권’이라는 신조어는 편리함만을 좇는 우리의 일상을 말해준다. 그러나 물질의 편의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정신적 삶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진다.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된다. 도심과 산사의 경계, 도봉산과 북한산 자락이 맞닿은 곳에 ‘망월사(望月寺)’가 자리하고 있다.

의정부 호원동 산자락을 따라 오르면 어느 순간 시야가 탁 트이며 단단한 기운을 품은 사찰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달을 바라보는 절’, 망월사다.

망월사는 신라 선덕여왕 8년(639년) 해호(海湖) 선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당시 선덕여왕은 해호 스님을 높이 받들어 곁에 두길 원했으나, 스님은 이를 사양하고 도봉산 산중에 암자를 지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행을 일과로 삼았다고 한다. 스님이 머물던 옛 산성 이름이 ‘망월성(望月城)’이었기에 절의 이름도 그 지명을 따르게 되었다. 또한 신라의 옛 수도 경주의 이름이 ‘월성(月城)’이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스님이 산중 암자에서 왕궁을 향해 나라의 융성을 기원했다는 해석도 전해진다.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꼽히지만, 고려 혜거국사(慧炬國師)의 승탑을 제외하면 조선 후기 이전의 사료가 많지 않아 창건 전승의 세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려 문종 때 왕실의 스승인 혜거국사가 중창했다는 기록과, 조선 후기에는 상궁 박씨 등 왕실 여성들의 시주로 ‘망월사 괘불도’가 조성된 점을 볼 때, 이곳은 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던 유서 깊은 도량이었음이 분명하다.

## 백 년 전의 '갓쟁', 치열했던 침묵의 시간

망월사에 선(禪) 수행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용성(龍城) 스님 덕분이다. 1925년, 스님은 일제강점기 무너진 한국 불교의 계율을 다잡고 쇠락해 가던 선 수행의 기풍을 바로 세우고자 이곳에서 '만일참선결사(萬日參禪結社)'를 발원했다. 당시 결사에서 정한 규칙은 치열함 그 자체였다. 해가 진 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오후불식, 정진 시간 동안 일절 말을 하지 않는 묵언수행, 수행 기간 산문(山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동구불출(洞口不出) 등은 훗날 당대의 선승들이 몸소 실천했던 엄격한 수행의 표본이 되었다.



망월사 천중선원

이러한 규칙들을 보면 요즘 세대가 추구하는 '갓쟁(God+人生)'이 떠오른다. 새벽 기상, 명상, 독서 등 하루 24 시간을 온전함으로 채우려는 그 철저한 삶 말이다. 누구나 바라지만 쉽게 해내지 못하는 그 엄격한 규칙과 몰입의 정신이, 이미 백 년 전 망월사 결사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이러한 결사 정신은 망월사 천중선원(天中禪院)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존경해 마지않는 성철, 청담, 자운, 향곡, 월산, 혜암, 법전 스님 등 한국 불교의 거목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특히 만일참선결사의 핵심 멤버였던 한암(漢巖) 스님은 망월사 결사 후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 평생 산문을 나서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鶴)이 될지언정,  
봄날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 땅을 팔아 옷을 장만해 스승을 섬긴 죄, 춘성과 만해

우리는 망월사에서 수많은 스승을 만날 수 있다. 망월사 조실(祖室)로 주석하며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유일한 상좌로 선지식인이었던 춘성 스님은, 거침없는 언행 때문에 흔히 '욕쟁이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님은 화엄경을 거꾸로 외울 정도로 경전에 능통했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칠순이 넘어서도 이불을 덮지 않았으며 “수행자가 편하고 따뜻한 잠을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안락한 잠자리를 거부할 만큼 자신에게 철저했다.

춘성 스님과 스승 만해 스님의 일화는 가슴 뭉클한 울림을 준다. 만해 스님이 옥살이를 할 때, 춘성 스님은 엄동설한 옥중에 계신 스승을 위해 두툼한 솜옷을 마련해 갔다. 옷을 본 만해 스님이 물었다.

“이 옷은 어디서 났느냐?”

“절의 땅을 팔아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러자 만해 스님은 불호령을 내렸다.

“이놈아, 절의 땅을 네 마음대로 팔아 옷을 장만해? 나는 너 같은 놈을 제자로 둔 일 없으니 다시는 스승이라 부르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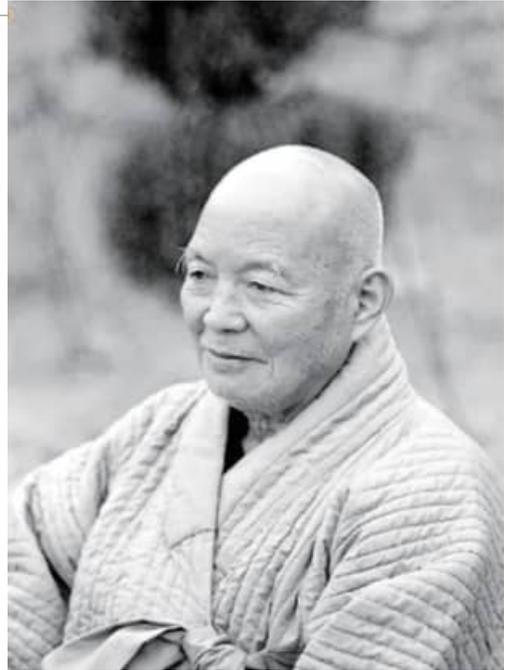
스님은 절 땅이야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만 스승의 옥체는 상하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후 춘성 스님은 누군가 스승이 누구냐고 물으면 평생토록 “저에게는 은사가 안 계십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스승의 가르침과 꾸중을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산, 엄격함 속의 깊은 존경심을 보여준 일화다.

### 토끼가 달을 우러르듯, 우리도 심을 향해

이처럼 치열한 수행과 가르침의 역사가 깃든 망월사 동쪽에는 ‘토끼 모양’ 바위가, 남쪽에는 ‘달처럼 둥근’ 봉우리인 월봉(月峰)이 있다.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형상”이라는 설화는, 지상(토끼)의 존재가 하늘의 진리(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수행자의 간절한 마음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비유다.

이 간절한 염원의 역사는 조선 왕실의 기도가 담긴 문화재에서도 빛을 발한다. 망월사의 괘불도는 1887년(고종 24년)에 조성되었는데, 일반 신도뿐 아니라 하정덕혜와, 상궁 박씨 등 5명의 상궁을 포함한 궁중 신도들이 시주하여 조성했다는 기록은, 왕실의 안녕을 향한 염원이 이곳 망월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증명한다. 무엇보다 이 아미타괘불도의 화기(畵記) 말미에는 모든 중생의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발원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 공덕이 누구에게나 두루 미쳐 모든 중생(衆生)이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무량수(無量壽)를 친견(親見)하면서 다 같이 불도(佛道)를 이루기를 기원한다.’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이 달을 바라보며 간절히 염원했던 그 마음은 결국 모두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 바쁜 일상에 지쳐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이번 주말엔 ‘슬세권’ 대신 도봉산 자락 망월사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 그곳에 가면 달을 바라보는 토끼처럼, 온전한 나를 마주하고 비로소 마음의 고요와 극락정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춘성 스님(1977년 입적)



망월사 관음전(낙가보전)

## AI로 그림책 만들기

# 내 가슴에 들어와 불기둥이 된 너

기계치인 나는 공간 감각이 달려서 늘 자동차 주차가 어려웠다. 차의 상채기도 많아 학교 정년 다음날 남편이 내 차를 처분했다. 마지막 인사를 못해서 오피러스에게 미안함과 아련한 그리움이 있다. 컴퓨터는 워드를 치는 수준이고 스마트폰도 통화, 검색, 물건 사기 정도다. 그런데 수행·봉사·교육에 앞장서서 전통과 혁신에 앞장서는 불교여성개발원이 공들여 준비하여 행정안전부 공모에 당선된 것이 말 그대로 '선무당 사람 잡듯' 동화 집필의 동기가 되었다. AI로 동화책을 만드는 수업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참여자들을 작가로 만들어 준다니, '얼씨구 좋구나' 하며 수업에 참여했다.

### 짧은 주제가 어느새 멋진 스토리로

개강 첫날, 개발원 2층에는 참여자들 모두 30여 대의 휴대용 컴퓨터 앞에 귀를 쫓긋, 이지선 강사와 보조 강사 두 분과 함께 AI 작가로서의 향해를 시작했다. AI 스토리 보드는 챗 GPT로 시작하고, 그림 도구는 따능(따스한 능력자)을 활용했다. 처음 스토리 보드를 기획, 구상할 때는 강사가 제시하는 대로 환경보호에 치중했으나, 수업의 차수가 거듭될수록 자신들의 욕망이 원하는 세계로 나아갔다. 어쩌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 될지 모른다는 절박감으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동화책 만들기에 매진했다.

“자기소개를 역사동화작가라고 하게 되었어요.”(12차 장형순)



“AI에 짧은 주제를 제시한 것뿐인데 멋진 스토리를 순식간에 만들어 내었습니다.”(1차 하수경)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시니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12차 서경애)  
 “오랜만에 친구와 오해를 풀고 참회할 수 있었어요.”(5차 김진)



모두 26명의 작가와 29편의 작품이 탄생했다. 몇 번씩 주제와 소재를 바꾼 회원도 다수였다. 예쁜 토끼와 다람쥐가 내 동화의 주인공이었으나 절실하지 못해서 걸돌았다.

### 어머니를 향한 진혼의 시

나는 마침 설악산 봉녕사 참배를 갔다가 장마로 낙산 흥련암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외숙 고문 모친의 부음(轉音)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건강하셨으나 돌아가시기 전 10년간 척추 디스크로 걷지 못하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마음을 시로 쓰게 되었다. 김외숙 고문을 위로하면서 육신은 사라지셨으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부모님께 진혼곡을 올렸다.

날아서 너에게 가겠다.  
 발이 묶여서 이승에서 늘 자랑이던  
 빛나는 너를 눈 마주치지 못하는 그리움으로 사인 날들,  
 밤마다 베킷닛 적시던 여원 소리들,  
 어미는 이제 침대가 아닌 넓은 창공에서 할 일이 많아졌네.  
 늘 너희들의 자랑으로 어깨가 뽐뽐하던 그 추운 겨울 떠나간 너의 아버지도 획 만나고 네 옆 다정한 사위가 밀어주던 휠체어의 편안한 촉감도 정동진 일렁이던 청파 여의도 벚꽃 우거진 숲속의 그네,  
 낙산사 흥련암 울퉁불퉁 그 길도 날아갈 수 있구나.  
 손주들의 공부방도 조잘거리는 등갯길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노라.  
 네가 나를 기억하는 날은 언제나 너를 만나러 간다.  
 문열이 팔아! 이승의 모녀간의 인연 어미는 늘 감사드렸다.  
 열심히 도를 닦아 다시 만나자.



AI가 내 가슴에 들어와 따스한 불기둥이 되어 일체유심조를 다시 체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감사할 뿐. 🌸

## 불교여성개발원의 오늘을 잇는 힘, 6~11차 차수 이야기

# 다양함 속에서 하나로 함께하는 연대

여성불자 108인회는 2003년 제1차를 시작으로 현재 제11차까지 이어져 왔으며, 올해 제12차가 새롭게 합류하였습니다. 각 차수가 남긴 시간은 108인회의 흐름을 만들어온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을호에 이어 여성불자108인 6차부터 11차까지의 차수를 소개합니다.

### 개발원 중책 맡은 든든한 6차 차수장/ 김양희

6차는 불교여성개발원의 중심을 든든히 지켜온 차수로, 지금의 정대련 원장까지 여러 원장을 배출하였습니다. 활동 회원 대부분이 개발원 산하 기관에서 대표나 임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불교 공부에도 열심이라 함께 법문을 나누며 성장해 온 시간이 깊습니다.

초반에는 사찰 순례나 미술관 나들이처럼 함께 호흡하는 교외 활동을 활발히 했지만, 지난 팬데믹 이후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모임은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6차는 늘 개발원 일을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직책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봉사하는 차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력으로 남아 있는, 믿음직한 차수라 자부합니다.



### 김룡사와 마야사에서 잊지 못할 추억 7차 차수장/황순연

7차는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간직한 차수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여러 장면이 떠오릅니다. 경북 김룡사의 스님께서 탕화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던 순간, 서로의 눈빛을 통해 배우고 공감했던 시간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충청도 마야사에서의 템플스테이 또한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주지스님과 동자스님, 거사님과 보살님들과 함께 화원을 가꾸고 밭을 정리하던 평화로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함께'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사진 속 밝은 얼굴들을 다시 마주하니,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새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월이 더 가기 전, 다시 모여 차 한 잔 나눌 날을 고대합니다.



### 묵묵히 각자 할 일 하는 배려깊은 8차 차수장/전영숙

저희 8차는 다른 차수에 비해 활동하는 인원이 적지만 조용히 할 일 잘하고 배려심 깊은 도반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바자 때 물건 종류가 다양하고 정성 가득한 것이 자랑입니다.

해마다 변함없이 저희의 '주력상품' 치약과 태반비누는 물론이고, 작은 접시, 가방, 행주, 쿠션커버, 신발 등 작은 것 하나라도 내놓으며, '함께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차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월 한 차례 화상으로 월례 모임을 가집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다녀온 여행지 정보 등을 교환합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은 늘 서로 가까이 있는 차수, 그것이 8차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 '참여가 보시행' 연꽃 같은 9차 차수장/양정희

우리 9차수가 어느덧 6년째를 맞았네요. 팬데믹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기도 어려운 시기에 시작해야 했던 인연이라, 통성명조차 쉽지 않은 시간이 2~3년이나 이어졌어요. 여기에 조계종단 포교원과의 어려움까지 여러 일이 있었지만,



25여 명의 회원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차수원들의 결속을 위해 매년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4명의 임원은 각종 행사에 발 벗고 참여하며 아낌없는 후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바자에서 한지 공예, 떨치부



음, 쑥인절미를 준비하느라 흘린 '진땀'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9차수는 '참여가 곧 보시행'이라는 마음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의 밑돌을 받치고 동시에 기둥이 되는 연꽃같은 차수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뜨거운 열정으로 단합하는 10차 차수장/고은자

10차는 현재 35명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108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자에 재능 기부로 나눔에 앞장서고, 여러 행사에 물심양면 적극 참여하여 전체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또 임원진에 많이 포진하여 개발원과 지혜로운 여성의 운영에 기여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워크숍에서는 차수 장기자랑(명상요가/이윤희명상요가원장 지도)을 위해서 모두 함께 자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온라인 줌으로 1달 넘게 연습하는 뜨거운 열정을 보이며 단합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10차 아자 아자!!!



### 다양한 재능과 경험 서로 나누는 11차 차수장/정철재

막내 차수에서 이제는 언니 차수가 된 11차입니다. 다양한 재능과 여러 경험을 가진 분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었던 지난 2년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어떤 불교단체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 참 좋았습니다. 차수의 단합을 위해 지역별로 조장이 중심이 되어 소통이 이루어졌고, 지역 모임과 전체 모임을 병행하며 함께하는 11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임원들을 비롯하여, 서로에게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신 조장님들과 회원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



## 정목 스님과 함께한 정각사의 하루

# 영108인, 동심으로 범심을 나누다

아이와 함께 불교여성개발원 영108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정각사로 향하는 길은 가슴 벅찬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서 불과 1km 남짓한 가까운 거리에 이토록 정갈하고 아름다운 도량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으니,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했습니다. 경내는 잘 가꾸어진 미술관을 거니는 듯 아름다웠고, 눈길 닿는 곳마다 절로 감탄이 나와 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저절로 느릿해졌습니다.

### 세계건축대상 수상한 정갈하고 아름다운 도량

법당에 다다라 삼배를 올리고 잠시 숨을 고르니 오늘 어린이 법회를 이끌어 주실 덕재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아이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시고, ‘부처님 생애 퀴즈’ 맞추기 상품을 하나씩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기념품이 소개되자, 아이들의 눈빛은 일제히 반짝이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리가 정돈된 후, 주지 스님이신 정목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정각사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56년 비구니 스님으로는 최초로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1958년 도심 포교에 원력을 세워 진력하신 광우 큰스님에 대한 이야기, 이곳 정각사에서 첫 어린이 법회가 시작되었다는 유래도 전해 들었습니다. 매주 일요 법





회를 통해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법음을 전하셨는데,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과 수녀님까지도 이 자리에 함께하셨다는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정각사의 상징인 미래탑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세계 건축 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유리로 된 이 탑에는 455분의 부처님이 허공에 매달려 시공간을 초월한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부처님 가슴에 숨겨진

세 마리의 나비를 찾으려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자, 작은 동심들은 엉덩이가 들썩이며 금세라도 달려 나가 나비를 찾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부처님 생애퀴즈와 법문 필사로 마음의 결을 다듬다

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뒤, 아이들과 어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프로그램에 임했습니다. 세 살부터 열두 살까지의 아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기소개를 나누며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익혔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높은 인기 덕분에 ‘부처님 생애 퀴즈 맞추기’ 시간은 열기가 뜨거웠고, 아이들은 선물과 귀한 이야기까지 얻어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법회에 집중하는 동안, 어른들은 천불이 모셔진 붓다홀로 자리를 옮겨 음악 명사가 이정은 박사님과 함께 한글 모음을 직접 소리내는 명상을 수행했습니다. 싱잉볼의 맑은 울림과 진동은 의식을 깊이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었고, 명상의 흐름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자신에게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박사님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니, 35분의 명상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명상을 마친 후에는 오색빛깔의 보자기처럼 곱게 차려진 비빔밥과 샐러드가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점심 공양이 되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점심 공양을 마치고 다시 붓다홀에 모여, 정목 스님께서 엮으신 ‘365 아침편지 달력’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둥글게 둘러앉아 아이들이 적은 문구를 돌아가며 발표하고 소감을 나누었는데, 구절 하나하나가 마음 한구석에 깊이 새겨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생일이 있는 달의 구절을 택하여 필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들의 생일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거친 돌들을 큰 통에 넣고  
문질러 치대면  
날카롭던 모서리가 둥글어집니다.  
위험한 부분은 사라지고 원래의 부드러움이 나타나지요.  
인간관계도 계속 부딪치면서 모난 곳이 다  
들어집니다.



아들의 이름이자 법명(法名)이 원산(圓山)인데,  
돌이 둥글게 다듬어진다는 이 구절과 마주하  
니 저희 둘은 머리를 맞대고 신기함을 느끼며 그 뜻을 되새겼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종이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 또한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쓴 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모습에서, 각자의  
불성(佛性)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한 듯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참으로  
따뜻하고 감사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 낙산성곽길을 걷는 발걸음에 스미는 인연

어느덧 마지막 프로그램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 함께 소풍 떠나는 가벼운 마음  
으로 정성껏 챙겨주신 간식을 들고 낙산성곽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  
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여 요즘 뜨거운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  
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성곽길을 조금 걷자, 극중 루미와 진우  
가 만났던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남녀 어린이 범우님들로 나누어 기념 촬영을  
하고, 범우님들의 '소다팝' 노래를 들으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도 있고 깊이 있는 5시간 30분이 눈 깜빡할 새 훌쩍 지나갔습니다. 영108인 모임과 처음 함께하는 자리였



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고, 어  
른들에게도 일상에 썬표를 찍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토록  
의미 깊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정목 스님과 정각사 보살님, 거사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영108인 모임을 세심하게 기획해  
주신 정대련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  
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영108인  
의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  
어져 더욱 깊고 뜻깊은 만남으로 자  
리매김하기를 발원합니다. 🌸

## 온 몸을 던져 불사를 돕다

### 의상의 첫 우바이 제자, 선묘낭자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영주 부석사에는 아주 애뜻하고 낭만적인 설화가 전해진다. 젊은 시절, 의상과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위해 떠나던 중 날이 저물자 근처 무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한밤중 목이 말랐던 원효는 바가지에 담긴 물을 시원하게 마신 후 다시 잠이 들었다. 갈증을 풀고 단잠을 푹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원효는 자신이 밤에 마셨던 물이 해골에 고여 있던 썩은 물이라는 것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헛구역질했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깨달음을 얻는다. 똑같은 물이지만 해골에 담긴 것을 몰랐던 어젯밤에는 감로수처럼 느껴지고, 오늘 아침에는 오장육부가 떨리는 썩은 물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바로 직시한 것이다. 홀연히 깨달음을 성취한 원효는 다시 서라벌로 돌아갔고, 의상은 홀로 유학길에 오른다.

함께 가던 도반이 돌연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목격하고 홀로 당나라로 향했던 의상의 마음은 어땠을까. 원효의 깨달음은 아마도 의상이 해동 화엄종의 교조가 되는데 엄청난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다. 바다 건너 당나라에 도착한 의상은 지엄 화상을 만나기 전, 그 지역 신심 깊은 거사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된다. 그때 거사의 딸 ‘선묘’는 의상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의상의 비범함이 진작부터 마음에 들었던 거사는 딸 선묘가 그를 유혹하는 것을 묵인한다.



하지만 의상의 마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선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저 한결같이 제도할 중생을 바라보는 눈으로 담담하고 자비롭게 예의를 갖춰 그녀를 대했다. 그 고결한 기품에 마침내 선묘는 마침내 의상의 여인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를 따라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며 제자가 되겠다고 발심한다. 의상을 따르는 첫 우바이의 탄생이었다.

“나는 세세생생 스님께 귀의해 불도를 성취하겠나이다. 제자는 스님께서 불도를 이룰 수 있도록 공양을 올리고 불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다하겠나이다.”

## 용이 되어 의상을 신라로 이끈 선묘

선묘가 스스로 의상의 제자가 된 후 의상은 마침내 종남산에 있는 화엄 2조 지엄 화상을 찾아가 8년 동안 화엄 사상을 공부하여 인기를 받는다. 다시 신라로 돌아가기 전, 의상은 선묘의 집에 들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난다. 뒤늦게 이를 안 선묘는 장장 10년의 세월을 하루 같이 의상을 생각하며 손수 지은 옷과 의상을 위해 모아 둔 귀한 책 등 여러 물건을 담은 상자를 들고 배를 향해 뛰어갔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배는 이미 출발한 후였다. 선묘는 절망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두 손에 힘을 받쳐 들고 기도했다.

“나는 처음부터 참된 마음으로 법신을 공양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힘이 스님께 닿기를 서원합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옷함이 바람을 타고 배에 무사히 떨어졌다. 그 광경을 본 선묘는 다시 한번 서원을 세운다.

“나는 처음부터 참된 마음으로 법신을 공양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몸이 큰 용으로 변하길 서원합니다. 그리하여 스님께서 탄 저 배를 무사히 신라까지 인도하고 스님의 크신 뜻이 신라 땅에 널리 전해지도록 하겠나이다.”



말을 마치자마자 선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벽에서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고, 그 순간 선묘의 몸은 크고 아름다운 용이 되어 바다에서 솟아났다. 용이 된 선묘는 의상이 탄 배가 신라에 닿을 때까지 폭우와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길을 이끌었다.



## 부석사의 큰 돌로 화엄사상을 펼치게 하다

의상이 신라에 도착한 후에도 선묘는 그를 계속 보호하였다. 의상은 영주 봉황산 아래에 화엄 사상을 펼칠 알맞은 곳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500명에 이르는 이교 무리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선묘는 이교 무리 앞에서 자신의 몸을 큰 돌로 바꿔 허공에 띄웠다. 이를 본 이교 무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하자 청정해진 터에 의상이 사찰을 건립하니 이곳이 해동의 첫 화엄 도량 부석사(浮石寺)이다. ‘부석(浮石)’이란 곧 ‘허공에 떠 있는 돌’이란 뜻으로 온몸을 던져 불사를 도왔던 선묘를 기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의상이 부석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자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화엄 사상을 계승할 십대 제자도 두게 되었다. 그 후 선묘는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석등 사이의 땅속으로 돌이 된 몸을 감췄다고 전해진다.

전설처럼 전해지던 이 이야기는 2001년 부석사에서 본존불부터 석등까지 연결된 약 13m 길이의 석릉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의상은 최초의 아시아 최고의 한류스타 스님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묘의 이야기는 <삼국유사>가 아니라 중국의 <송고승전>과 13세기 교토의 고산사를 화엄종 사찰로 중흥한 일본의 명혜스님이 저술한 <화엄전기>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상과 선묘의 설화는 한 명의 훌륭한 스님이 탄생하기까지 그 뒤에서 세속의 애정을 대승의 불심으로 승화시켜 공양을 완성한 한 우바이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

## 구조와 색, 소리로 가르침을 전하는 깨달음의 공간

###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가’

절은 한 걸음, 한 시선, 한 소리가 모두 가르침이 되는 살아 있는 수행의 공간이다.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사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곤 한다. 이는 단지 공간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사찰로 들어서는 길에서 만나는 작은 돌멩이 하나부터 일주문과 현판, 사천왕, 돌계단을 지나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전각과 그 안에 모셔진 불상까지 사찰에서 발을 내딛는 모든 공간은 수행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고요한 힘을 간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절이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 데에는 불교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 산은 동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신성함과 함께 무위(無爲)의 자연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산은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날 수 있는 곳이자 바로 수행자가 본래의 마음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장소로 여겨져 왔다. 울창한 숲과 굽이치는 계곡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수행하기 좋은 힘을 가진 곳으로 인식된 것이다. 송유역불의 조선시대, 도심으로부터 밀려난 불교가 산으로 들어가면서 수행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출처 : 핀터레스트

#### ‘세속을 벗어나는 첫 걸음’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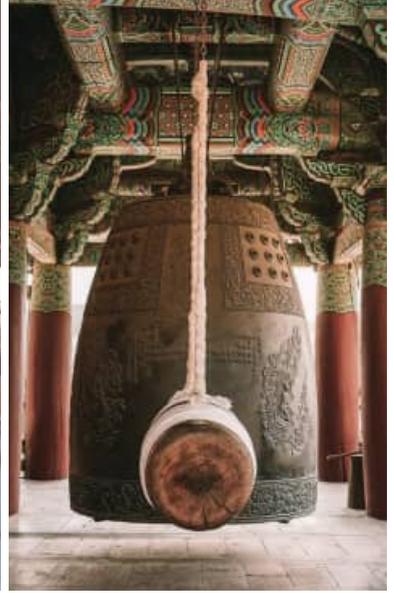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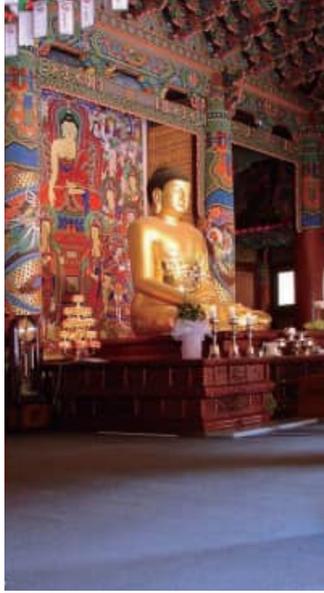
사찰에 들어서면 일주문(一柱門)을 가장 먼저 만난다. 단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일주문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상징성은 강렬하다. 일주문은, ‘모든 번뇌를 끊고 하나의 진리를 향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그 자체로 세속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를 나누는 분수령이다. 일주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육신은 그대로지만 마음만큼은 세속을 잠시 놓아두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절을 찾는 사람은 일주문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들뜨고 번잡하던 마음의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저 문 하나를 지나왔을 뿐이지만 부처님이 계신 수행의 공간으로 이미 들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 수행의 두 축, 정진과 평안을 수직과 수평으로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대개는 탑(塔)이다. 사리나 가르침을 봉안

하는 탑은 하늘 향해 세워진 수직의 구조로, 깨달음을 향한 상승의 의지를 상징한다. 탑의 각 층은 수행 단계, 존재의 차원, 또는 세계를 구성하는 법칙을 상징하며, 위로 올라갈수록 번뇌가 사라지고 본성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찰의 중심에서 탑을 내려보는 곳에 자리한 대웅전은 말 그대로 ‘위대한 영웅’, 곧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다. 인상적인 건 수직 상승의 의미를 담은 탑과 달리 위대한 영웅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은 수평의 안정과 평등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대웅전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그 안에 계신 부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탑과 대웅전이 함께 구성하는 공간은 ‘상승과 머뭇’, ‘정진과 평안’이라는 수행의 두 축을 조화롭게 완성한다.

### 세상의 번뇌를 깨우는 범종루의 울림

사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구조물이 범종루다. 범종은 중생의 잠든 마음을 깨우는 법음(法音)의 하나다. 새벽과 사시, 저녁 예불에 사용하는 범종, 범고, 목어, 운판 등 네 가지 범구는 ‘모든 존재가 고르게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자비의 소리이자 모든 생명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기도 하다. 범종은 지옥 중생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가죽으로 만들어진 범고는 네발 달린 축생의 무리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운판은 허공을 나는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목어는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전달한다.

### 길·계단·문이 완성하는 수행의 지도

많은 이들이 사찰을 방문할 때 자연스럽게 오르막길을 걷고, 돌계단을 오르며, 여러 개의 문을 지나게 된다. 놀랍게도 이는 수행의 단계를 상징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점점 가팔라지는 계단은 수행의 어려움과 끊임없는 정진을 의미하며, 문과 전각을 여러 번 통과하는 여정은 번뇌를 해탈하고 지혜로 나아가는 과정과 닮아있다. 웬지 “너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는가?”라는 조용한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즉, 사찰 곳곳을 누비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 체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사찰 건축과 경관은 길으로 보면 아름다운 풍광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깨달음의 여정이 내재해 있다. 문은 마음의 전환을, 길은 수행의 흐름을, 탑은 깨달음의 방향을, 전각은 머무름의 가르침을, 종소리는 다시 길을 떠나게 하는 울림을 전한다. 공간과 구조, 색과 소리로 끊임없이 가르침을 건네는 곳이 바로 ‘절’이다. 그래서 ‘절’은 종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의 철학적·심리적 공간이며, 침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가장 오래된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다. 

## 세상과 나를 잇는 가장 깊고 고요한 통로

# 백담사 봉정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설악의 돌계단을 오르며 나는 배웠다. 기도란 소원을 비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길임을. 불교 신행 32년째 되는 해를 보내는 지금, 그 세월 동안 가장 깊은 인연을 맺어온 곳은 설악산 봉정암이다. 처음 봉정암을 찾은 것은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큰아들이 먼 타향으로 유학을 떠나던 날,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듯 허전했다. 그 허전함을 안고 나는 산길을 올랐다. 그때는 그저 “부디 아이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바른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뿐이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법흥사 여신도회 회장을 25년간 맡아 전국의 오대 보궁과 삼보사찰을 해마다 두 차례 순례하였고, 봉정암 기도는 어느덧 서른다섯 번째가 되었다.

### 10달 기도 회향하는 날, 통곡한 사연

큰 깨달음의 체험 하나 떠올리자면, 아들이 박사과정을 위해 10개월만 학비를 도와달라며 떠난 그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동차로 왕복 3시간 거리의 법흥사를 먼 거리인 줄도 모르고 밤샘 기도를 하였다. 10달 기도 회향을 마치는 날, 아들한테서 받은 소식은 그 숫자까지 또렷하게 기억한다. 73,600불이라는 4년 학비 전액 면제와 23,800불이라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차를 길가에 세운 채 대성통곡을 했다. 그 순간 흘렸던 눈물의 뜨거움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나, 청소년 선교 활동과 신행 전법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기도가 세상을 향해 널리 번져가는 자비의 실천임을 새롭게 느꼈다. 이러한 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웃과 지인들이 점점 늘어나며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는 도반들이 되었다.

그들은 내 신심의 변화 과정을 직접 지켜본 증인이었고, 나를 통해 불교를 접하고 불교가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길을 열어 주었다. 기도는 말이 아닌 마음의 힘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봉정암에 오르는 길은 늘 쉽지 않았다.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이면 눈 덮인 돌계단이 유난히 미끄러웠고,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새벽이면 앞사람의 형체조차 흐릿하게 보이곤 했다. 하지만 정상 가까이 다다를 때, 마치 하늘 문이 열리듯 구름바다 위로 불쑥 솟은 봉정암의 지붕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가 떠올라 붉은 햇살이 번져 오르면 세상 모든 빛이 한순간에 합쳐져 쏟아지는 듯 눈부시다. 그 적막한 평온 속에서 나는 기도를 올린다. 얼굴에 스치는 설악의 바람을 느끼며 차갑게 언 돌부처 앞에 엎드리기도 했다. 봉정암은 세상과 나를 잇는 가장 깊고 고요한 통로였다.

### 쌀 한 홑이 헬기 김장으로 커지는 보시의 기도처

봉정암은 '자기 먹을 쌀 한 홑을 지고 가는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돌부리에 앉아 미역국에 김치를 꺼내 먹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데 김치가 부족하면 어쩌나. 김치가 넉넉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순간이 나의 보시 수행의 첫걸음이었다. 그때부터 김장철이면 고춧가루, 무, 배추, 젓갈을 정성껏 준비해 봉정암으로 보시했다. 헬기로 실린 김장 재료가 산 위로 올라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작은 정성이 수행자들의 밥상에 오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졌다. 그 이후에도 고구마, 감자, 청국장 등 주위에서 보시한 음식을 올리며 "기도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자"는 뜻을 담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공양의 실천이었다.



기도의 세월이 쌓이면서 나는 깨달았다. 기도는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자식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덕분에 먼 타향에서 공부하던 큰아들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기도의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오랜 정성과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꽃임을 알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마음속으로 봉정암을 향해 절을 올린다. 기도가 나를 살리고 보시가 나를 키운 세월 동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모든 자식들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길을 걷기를. 그리고 이 작은 기도가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여기서 기도한다. 

○ 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10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5주년 기념식 프로그램과 행사 장소를 확정하였다. 당일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곧이어 제12차 108인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천된 인원 중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하였으며, 본인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11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추천받은 학생을 심사하여 최종 26명의 지혜장학생을 결정하였다.

12월 11일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개발원과 (사)지혜로 운여성이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후원을 뒷받침해 준 이사님들께 정대련 원장이 감사의 점심공양을 준비하였다. 오후 2시 확대이사회에서는 2026년 1월 8일 신년모임에 모실 법사님으로 정목스님을 확정하고 회원들께 공지하기로 하였다. 노인자 부원장은 햇호두와 누룽지를 참석하신 이사님들께 선물하였다.



○ 준한 스님, 네팔 품디콧에 JustBeHimalaya 건립하고 약사여래불 고불식 열어

홍대선원 준한 스님이 네팔 포카라 품디콧 언덕에 한국 절 JustBeHimalaya를 건립하고, 한국으로부터 약사



여래불과 미륵불을 모셨다. 11월 7일 정대련 원장은 JustBeHimalaya 약사여래불 고불식에 참석하여 한국 불

교 및 사찰의 안녕과 번성을 기원하고, 불교여성개발원 임원과 회원 40명이 모금한 5백여만 원을 전달하였다.



○ 불교여성개발원 창립25주년 기념식과 제1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식, 제10회 지혜장학금 2천5백만 원 지급

불교여성개발원 창립25주년 기념식과 제12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이 11월 22일 오후 2시 굿모닝시티 9층 스카이홀에서 열렸다. 이현정 2차 108인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역대 원장이신 김인숙, 정경연, 김애주, 김외숙, 이기향 고문을 비롯하여 참나선원 무관스님과 내빈 230여 분이 참석하였으며, 전국비구니회 광용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다. 불교여성개발원 전임 이사장 혜충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스님을 비롯하여 주경택 청리움 대표, 방승연 김미화, 모델 윤정, 옥복연 (사)불교아카데미 원장, 유주연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과 대불련 학생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었다. 또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 등 26명에게 장학금 2,500만 원을 수여하였다.

창립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제12차 108인 선정식에서는 이영주 여성불자108인회 회장의 환영사와 류지영 6차 108인(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정대련 원장은 선정된 제12차 108인 중에 당일 참석한 66인에게 선정증을 수여하였다. 마지막으로 12차 108인



으로 선정된 국악인 민혜성님과 소프라노 강혜명님, 그리고 불교여성개발원 위즈덤합창단의 창립기념일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다.



앞서 창립25주년 및 여성불자108인 선정식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임원과 회원 72명이 1,630여만 원을 후원하였다. 강원지원에서 김옥주 지원장, 김무성 고문, 이명숙 고문을 포함하여 9명이 참석하였고, 대구경북지역 회원들도 20여 명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올해 칠순을 맞이한 56년생 108인 9명(김여주, 남동현, 박원자, 양경윤, 양정희, 이정숙, 이해남, 최순희, 한정화)은 칠순을 자축하며 참석자들에게 떡을 후원하였다.

### ○ 정대련 원장 도영대중사 영결식 참석

11월 24일 불교여성개발원 초대 이사장(당시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내신 금산당 도영대중사께서 원적에 드심에 따라 영결식과 다비식에 참석하고 금일봉을 전달하고 조문하였다.



### ○ 흥대선원 준한 스님 초청 특강

11월 25일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흥대선원 준한 스님의 “흥대선원에서 JustBeHimalaya까지” 제목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스님은 출가하게 된 인연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최초의 한국 사찰을 건립하고, ‘싯다르타 순례길’ 복원을 향한 히말라야 프로젝트를 준비하기까지의 여정을 신심 가득한 법문으로 들려주셨다.

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던 ‘전화위복’의 경험, 수행은 두려움과 정면 승부라는 말씀, 그리고 축원문에 ‘건강’보다 ‘마음’을 먼저 뒤야 한다는 가르침 등, 스님의 삶에서 우리나라 귀한 통찰을 나



누는 시간이었다. 언젠가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과 함께 싯다르타 순례길을 걸어보자는 약속을 남기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 ○ 수행정진기도 1300일(금강경독송기도 1000일) 회향과 1400일 기도 입재

11월 27일과 28일, 금강경기도 동참자 18명은 경남 산청 선림사를 방문하여 불교여성개발원 수행정진기도 1,300일 회향(11월 30일)과 1,400일 입재(12월 1일) 기도를 올렸다. 27일 선림사 백일재에 동참하며 1300일을 회향하였고, 저녁 예불에 참여한 후에는 법사님과 차담 시간을 가졌다. 지금도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해 매일 새벽 1시 50분에 일어나 절 기도하시는 보우법사님의 1일 1만 배 300일 절 기도 수행 체험을 듣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법사님이 준비하신 쾌적한 잠자리와 정성 어린 공양에 감사하며, 기도 동참자들은 28일 새벽예불 108배와 사시예불 금강경 7독을 함께 하며 1400일 입재기도를 올렸다.



○ 행정안전부 공익사업 출간기념회 개최

11월 22일 오전 10시 동대문 굿모닝시티 9층 스카이홀에서 행안부 공익사업 [시니어 지혜+AI 상상: 그림책으로 만나다]를 최종 회향하는 북콘서트가 열렸다. 수강생 26명이 제작한 29권의 AI 그림책을 전시하며, 5월 첫 AI 강의를 듣고 폭염이 기승을 부린 한여름을 지나 11월 북콘서트가 열리기까지 쉽 없이 노력한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AI 그림책 제작을 지도한 이지선 강사의 진행으로, 26인 신진 그림책 작가와 각자 책을 소개하고, 김외숙 고문과 7명의 수강생이 대표로 소감을 발표하였다. AI 그림책을 펴낸 불교여성개발원 회원은 물론, 가족 친지 여러분이 동석하여 아낌없는 박수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훈훈한 시간을 나누었다.



○ 정대련 원장, 혜충 스님 제1회 종교평화상 수상식에 참석

12월 18일 오전 11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프란시스코홀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제2대 이사장(당시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혜충스님께서 한국종교인연대(URI-K)가 선정한 제1회 종교평화상(개인 부문)을 수상하심에, 정대련 원장이 참석하여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혜충 스님은 11세에 출가하시고 73년간 수행 생활하시며, 조계종 포교원장 및 용성 스님 유지를 받드는 대각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불교여성개발원의 독립 후에도 우리 회원들과 함께 인도 부처님 순례길을 기

도로 인도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후원하고 계신다.



○ 대구, 경북(대경) 지역 모임

11월 11일 기림갤러리(김경림/묘운)에서 이정숙 대표의 19분이 참석하여 신입회원 소개와 인사, 불교여성개발원 소개, 그리고 22일의 108인 선정식 참석 독려 등으로 다정한 정담을 나누었다.



○ 고등동복지회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효나눔 행사 ‘어르신 건강하세요(孝)’를 1부 어르신 노래자랑과 2부 경로잔치 특식 나눔으로 진행하였다.

노래자랑은 복지관 이래 처음으로 진행한 행사로 10명의 지역 어르신이 참가신청하고 멋들어지게 트로트와 동요 등을 가수처럼 불러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노래자랑 1등에게는 쌀 20kg의 부상이 주어졌다. 2부 경로잔치 특식은 잡채, 고기볶음, 나물, 떡과 과일 등



푸짐한 메뉴로 어르신 백여 명에게 행복한 노인의 날을 선물했다.

10월 16일은 지역 어르신 33명을 모시고 철원 주상절리와 고석정 꽃밭으로 가을 맞이 힐링 나들이를 다녀왔다. 코로나 이후 첫 나들이로 어르신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다.



### ○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11월부터 붕어빵, 군고구마, 굴 등 겨울 간식을 주제로 한 놀이를 통해 오감으로 겨울을 느껴 보기도 하고, 스케이트장 놀이로 신체 조절능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겨울 놀이는 아이들에게 계절을 이해하는 배움이자,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 ○ 로즈힐어린이집 개원식

(사)지혜로운여성은 9월 1일 중랑구에 '아이들의 첫 배움터' 구립 로즈힐 어린이집을 개원 하였다. 정원 83명에 지금은 80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속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개원식에는 중랑구청장과 정대련 이사장, 남동현·이해남 부원장, 양정희 9차 차수장, 권승오 9차 회원, 조정숙 국장이 참석하였다.



### ○ 날란다독서모임, 송학 스님의 『티벳 사자의 서』 특강

날란다 독서모임은 2025년 10월 22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송학 스님의 『티벳 사자의 서』 특강을 열었다. 대면 46명, 비대면 20명 등 총 66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큰 수술을 하시고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데, 스님의 곁을과 기운은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하고 맑았으며, 목소리는 매우 우렁찼다. 네 시간 넘는 강의 동안 전혀 지친 기색이 없으신 모습에서 오랜 수행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스님은 『티벳 사자의 서』를 '죽음 이후 마음이 겪는 여정의 지도'라고 설명하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 마주치는 빛과 소리, 두려움의 형상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본래의 빛을 알아차리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들려주셨다. 강의를 들으며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열한 수행이 필요한지 절절히 느끼게 되었고, 일상의 마음가짐조차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특강은 정경연 고문께서 독서모임 참여자뿐 아니라 여러 108인회 도반들과 뜻깊은 공부 기회를 나누고자 후원해 이루어진 자리로,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 글/전영숙\_날란다독서모임 반장



## ○ 명상리더십센터, 육법공양—몸과 마음과 물질 이 함께 하는 수행

지난 11월 22일(토) 열린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5주년 기념식의 식전 행사에 처음으로 육법공양(六法供養)을 올렸다. 이 육법공양은 명상리더십센터에서 대한불교 문화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일상의 생활이 곧 명상’ 즉 ‘움직이는 명상’을 표방하면서 수행과 선치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의도로 마련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물은 각각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 향(香)은 해탈향(解脫香), 즉 번뇌를 태워 주위를 맑게 하듯, 해탈(解脫), 희생, 화합, 공덕을 상징한다.
- 등(燈)은 반야등(般若燈)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인생을 환히 밝혀주는 지혜를 상징한다.
- 꽃(花)은 만행화(萬行花)로, 아름답게 피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디듯, 보살의 만행(萬行)과 수행을 상징한다.
- 과일(果)은 보리과(菩提果), 즉 깨달음의 결실을 의



미하며, 불교 최고의 이상인 깨달음을 상징한다.

— 차(茶)는 감로다(甘露茶), 즉 부처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함을 뜻하며, 법문을 상징한다.

— 쌀(米)은 선열미(禪悅米), 즉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과 환희를 의미하며, 기쁨과 환희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육법공양은 단순히 공양물을 올리는 행위를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보리심(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공양을 올리는 이에게는 스스로 복을 받는 ‘복전(福田)’이 된다는 의미도 있다.

육법공양 의식은 주로 부처님 오신날이나 주요 불교 행사 때 부처님 전에 올리며, 공양물을 올리는 행위 자체보다 올리는 사람의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공양자들은 단아한 복장으로 여유 있고 절도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공양 의식에 임해야 한다. 이 행사는 김영희 센터장의 진행으로 산화락/서경애·김지영, 향/정대련 원장, 등/박문숙·김만옥, 꽃/김숙애·김지선, 과일/박기옥·전기순, 떡/홍소진·이윤희, 차/서경애·김지영이 시연하였다.

<고요 속의 향기 - 행다수행과 선치유>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지닌 분들이 여섯 번 모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몸에 익혔고, 이기향 전 원장님의 안목으로 헌다복을, 정진희 전센터장님의 안목으로 불전꽃을 마련하는 등 여러분의 수고가 숨어 있다.

● 글/김영희\_명상리더십센터장

## ○ 불교여성연구소, 3차 응원한데이/학술세미나

10월 17일 지혜실에서 불교여성연구소에서 3차 “지혜를 나누는 당신이 아름다워, 응원한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부는 김선숙 소장이 진행하는 불교 공부로 느낌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수념처 명상), 정신과 물질의 구별(2), EFT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강의가 있었다. 2부 회원들의 지혜 나눔 시간에는 성민선(가톨릭대, 3차)의 수필쓰기 읽기, 권영순(동국대 평생교육원, 9차)의 미술치료(한지화), 사기순(민족사, 4차) 모두가 행복한 길, 마지막으로 김선숙(5차) 소장의 천연화장품 만들기가 이어졌다. 마무리로 싱어롱과 댄스스텝을 함

게 하였다.

12월 5일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5주년을 맞아 연구소는 동국대학교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현대인의 고뇌에 대한 불교적 통찰과 해법: 명상·과학·철학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권영순(11차 108인)님의 축하공연-태극권 시범(이뵈고?)을 시작으로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초강연을 비롯하여, 김열권 위빠사나붓다선원장, 황수경 동국대 교수, 이은영 박사와 양영순 박사 등이 현대물리학이 제시하는 우주의 근원적 이해에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재조명하고, 전통명상수행이 지닌 지혜 및 인도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직면한 고뇌를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 연구 발표하였으며, 약 120명이 동참, 토론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 ○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

10월 1일, 11월 5일 12월 3일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를 실시하였다. 10월은 사찰순례 평가 및 제12차 108인 선정을 앞두고 주변에 인연있는 재가여성불자 108인 추천을 권유하였다. 11월은 창립25주년 역할분담을 논의하였고, 12월 회의는 2026년 제8회 여성불자108인의 날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1년 동안 수고한 108인회 각 차수장 및 차수 임원들에게 점심공양 및 호박 식혜를 선물하였다.



### ● 여성불자108인회 차수 만남의 날

-〈5차 108인〉

9월 18일 캐나다에서 귀국한 강미중 회원과 미술관 나들이를 하였다. 12월 19일에는 메리어트호텔에서 차기 집행부 구성회의와 송년 모임을 하였다.



-〈8차 108인〉

12월 8일 줌으로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근황을 나누고 개발원 창립25주년 기념식 행사 참석을 독려하였다.

-〈11차 108인〉

11월 17일 조계사 맞은편 카페 아로파에서 차기 집행부 구성 논의 및 창립25주년 기념식에 참석 및 봉사를 의논하였다. 12월 26일에는 인사동 통근갤러리에서 남혜경 라이프코치와 함께하는 '2026, 내 생애 최고의 해' 그룹코칭이 있었다.



## ○ 가족지원센터

10월 18일 한부모의 날 기념하여 좋은벗은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모두하나축제에 차명상으로 부스 참가하였다. 이날 좋은 벗 자조모임 리더 사기순 회원은 서울시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정대련 원장, 고은자 가족지원센터장, 이윤희 이사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고은자 센터장은 하반기부터 가족지원센터에서 교정교화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자를 발굴하여 월 10만 원을 교정교화센터 고봉중고 봉사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 ○ 교정교화센터

10월 26일, 11월 23일, 12월 28일 고봉중등학교(구 서울소년원) 불교반 법회를 진행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불교반 법회에 충실히 참석하는 두 학생을 선정하여 1인 50만 원씩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년 동안 고봉중교법회를 이끌어 온 양현정 센터장이 임기가 종료되어 12월 마무리 법회에 정대련 원장과 12차 서혜선 교수 그리고 조국장이 참석하였다. 8차 108인 우인순 회원은 연말을 맞이하여 고봉중고학생들에게 초코파이 15박스를 간식으로 후원하였다.

## ○ 다문화행복가족센터

10월 18일(토)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모두하나대축제에 행복가족센터도 부스로 참여하여 가족편지쓰기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였다. 11월 9일에는 일산 탄현에 있는 파크 골프장을 방문하여 골프 체험하는 특별한 나들이를 즐겼다. 12월 7일, 송년회에서는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새로운 회원들과 함께 점심공양을 나누며, 내년에도 활기찬 행복가족센터 활동을 하기로 다짐하였다.

## ○ 명상리더십센터

11월 3일 부처님상담법 심화과정을 종강하였다. 10강을 모두 출석한 김영희, 김경숙, 김지영, 박문숙, 서경애 5명은 개근 선물로 사각김 1박스를 받았다. 수업 10분 일찍 도착해 묵언으로 강의 준비를 하며 수업에 집중한 수강생들은 내년 봄 강좌를 기약하며 저녁 공양을 함께하고 소감 나누기를 통해 잘 이끌어주신 백경임 강사님께 감사를 전하였다.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간화선 7시간 집중수행의 시간을 가졌다. 수행이 끝난 후, 마음나누기에서 앞으로도 집중 수행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많아 신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 생명존중운동본부

12월 4일 송파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황외숙, 강경숙, 윤용옥 3인은 위례 산마루 경로당에서 38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여 의향서를 작성하였다. 성남이 위례더힐 시니어센터 회장이 방송으로 홍보해주시고 복사도 도와주시고 의향서 작성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류인숙(5차 108인) 상담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자택 방문 의향서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 ○ 지혜아카데미

10월 18일 8강은 정진원 동국대 세계 불교학 연구소 교수를 모시고 1부 “나를 펼치고 여행을 쓰다”에 이어 2부 “북토크-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맑은 소리 맑은 나라)을 각 1시간씩 진행하였다.

11월 27일 9강은 하수경 교수의 미술관 탐방 프로그램으로, <향수 고향을 그리다(국립현대미술관 1~4전시실)>를 관람하였다. 늦가을 덕수궁의 정취와 옛 시절의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12월은 김점란님과 명상 서클댄스로 마무리 하였다. 강의 전에 12시에 모여 송년 공양을 함께 나누며 올 한해 지혜아카데미 수업이 잘 회향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집행부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 ○ 새활용공모전

12월 8일 이정호 미술심리상담 대표(2차 108인)의 안내에 따라 애착쿠션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2025년 새활용공모전 평가 결과, 아이템 선정과 선정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바느질 실습을 겸한 작품 만들기였다. 참석한 7인은 원하는 작품을 선택하고 천을 고르고 디자인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2026년에는 6개월 동안 월 1회 작품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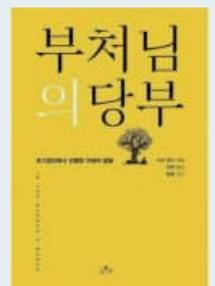
### ○ 위즈덤합창단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지혜실에서 정기연습을 하고 있다. 11월 22일 행안부공익사업 공익 사업과 창립 25주년 기념식에 축하 음성 공양을 올렸다.



### ○ 날란다독서모임(반장 전영숙, 8차108인)

10월 22일 여주 성철사 송학 스님을 모시고 <티벳 사자의 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9월 4일부터 『부처님의 당부』 독서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 강미중(5차 108인)

11월 3일 강미중 보문회 회장과 임원 2인은 불교여성광장을 방문하여 보문회 기금 중 1천만 원을 불교여성광장건립에 후원하였다.



○ 강부자(1차108인)

10월 21일 불교여성개발원을 방문하여 김인숙 고문 및 정대련 원장을 만나 환담하였다. 지난 3월 108인 워크숍 대중공양(100만 원)에 이어 108인회 가을 바자회에 도자기, 의류 등 생활용품을 기증하였다.



○ 맹난자(8차108인)

12월 10일 수필집 『흰 연꽃의 눈』을 출간하였다. 작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하철 게시판 <풍경소리> 편집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고문으로 있다.



○ 박원자(8차 108인)

12월 26일 수원 봉녕사 대적광전에서 14주기 세주당 묘엄명사 추모다례제와 함께 『묘엄평전』 출판 봉정식이 있었다. 출가수행자들의 생애와 수행에 대한 글을 30년 이상 꾸

준히 써 온 박원자 작가는 묘엄 스님의 삶과 행적이 좀 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진 자료와 스님의 육성 원고를 풍부하게 신는 한편,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사실에 기반하여 책의 정밀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 옥복연(5차 108인)

9월 13일 옥복연((사)불교아카데미 원장)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창립 2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옥복연 원장이 조력존엄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였다.



○ 이기향(1차108인)

12월 19일과 20일 공연한 인천시립무용단, 창작 신작 '태양새 - 빛의 날개를 퍼다'에 오랜만에 패션아트디자이너로서 의상감독으로 활약하였다. 이기향 고문은 회원들에게 태양새 공연 티켓 초대장 15매, 50% 할인 티켓 40장을 선물하였다.



○ 이영주(7차108인)

10월 14일 앰버서더 서울폴만호텔 2층 볼룸에서 이영주콜렉션 30주년 기념패션쇼를 개최하였다. 특히 정경연 고문과 콜라보 작업으로 장갑을 프린트한 다양한 패션을 선보였다. 30주년을 맞아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 이인자(2차 108인), 김외숙(2차 108인)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마루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제 27회 순후전(구상과 비구상-경계를 넘어)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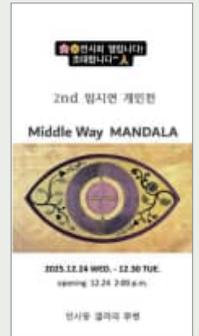
○ 임순덕(5차108인)

12월 16일 수필집 『러브 스토리』를 출간하였다. 세월을 넘어 사랑하고 사랑받는 순간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청춘이라는 내용의 책이다.



○ 임시연(11차108인)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루벤에서 만다라 명상 회화와 만다라컬러링그림 & 만다라드로잉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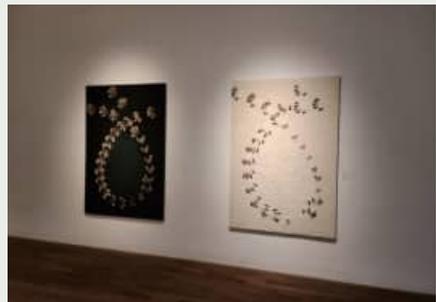
○ 전영숙(8차108인)

『역사 속 한국 비구니』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선정한 불교출판문화상 - 제22회 올해의 불서 10 - 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 정경연(1차108인)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가나 아트센터에 개최되는 자문밖 서울현대예술전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 제12차 여성불자 108인

번호	분야	이름	지역	주요활동사항	번호	분야	이름	지역	주요활동사항
1	경제	권영희	서울	(주) 터보힐링밴드 대표이사	55	보건의료	김미경	서울	무량감로회, 대한약사회
2	경제	박신정	강원	하슬라아트월드 대표이사	56	보건의료	김주원	서울	경희 김주원 한의원 원장
3	경제	손은정	경기	지성이음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57	보건의료	성수현	경기	아리바이오, 대표
4	경제	신영숙	경기	개인사업	58	보건의료	이영숙	경북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가정간호팀장
5	경제	안소현	서울	스트루홍드 로보틱스 재직	59	보건의료	정승아	서울	더드림스부인과, 전문의
6	경제	유현숙	충북	태전농원대표	60	보건의료	정윤경	서울	중앙대학교 의사
7	경제	유희경	서울	라크레아 대표	61	보건의료	최일영	대구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간호과장)
8	경제	정강희	대구	정강희 두부마을 대표	62	사회단체	허난영	서울	여성 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9	교육연구	공은숙	서울	전동명여자고등학교 교사	63	사회단체	김정기	경북	장계향선양회 영양군지회장
10	교육연구	권애자	서울	어린이집원장	64	사회단체	엄금순	강원	한국여성농업인 영월군 연합회 임원
11	교육연구	김득이	경북	사)한국차인연합회 구미차문화교육원 원장	65	사회단체	윤영애	대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12	교육연구	김미혜	대구	동국대학교 WISE 교양교육원, 조교수	66	사회단체	이경옥 (기외)	강원	나눔명상예술원 원장
13	교육연구	김혜경	서울	전중학교교사	67	사회단체	이명남	대구	전생활안전협의회 사무국장
14	교육연구	김혜자	인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도위원	68	사회단체	이미경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15	교육연구	남숙희	서울	전초등학교 교감	69	사회단체	이진향	경북	장계향선양구미시 사무국장
16	교육연구	노지숙	경남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강사	70	사회단체	장현숙	대구	DCU지역이동센터 센터장
17	교육연구	박현주	서울	공감소통학교 대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71	사회단체	황영진	경기	동안생체활동인주간보호센터 대표
18	교육연구	배정화	경북	프리랜서, 사할 꽃공양	72	언론출판	김현희	세종	도서출판 하늘북 대표
19	교육연구	손은주	부산	부산간곡중학교 교감, 부산교직원 불자연합회 회장	73	언론출판	최혜정	경기	초이스북 대표
20	교육연구	신선경	서울	어린이집 원장	74	자원봉사	김영미	경기	미륵선원 임원
21	교육연구	심향분	서울	전그림책협회 부회장	75	자원봉사	김정숙	서울	미륵선원 임원
22	교육연구	안선숙	서울	한국장애인골프연구소 소장	76	자원봉사	김지선	경기	다도강사
23	교육연구	양영순	서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77	자원봉사	김혜련	서울	봉은사 봉사
24	교육연구	이나겸	서울	유치원 교사	78	자원봉사	김희애	서울	미륵선원 임원
25	교육연구	이문자	서울	성교관예절, 차문화연구소고문	79	자원봉사	문혜인	서울	봉은사 봉사
26	교육연구	이은미	서울	전초등교사 퇴임	80	자원봉사	박영숙	서울	미륵선원 봉사
27	교육연구	이은영	서울	경희대학교 강사 불교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81	자원봉사	서경애	경기	전성원ENG대표
28	교육연구	이지윤	서울	동덕여동철학연구소 연구원	82	자원봉사	이혜숙	서울	사찰봉사
29	교육연구	이지혜	서울	어린이집 원장	83	자원봉사	한화연	서울	봉은사 연등회 봉사
30	교육연구	임미숙	서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도위원	84	정치 행정	조영라	서울	우리은행, 부지점장, 2025 퇴임
31	교육연구	조문현	경기	공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85	정치 행정	김유경	서울	태일회계법인 전무
32	교육연구	조정원	경기	이에스지디자인경영원(주) 이사	86	정치 행정	김효숙	대구	수성구 자선동장
33	교육연구	최연지	서울	동덕여동철학연구소	87	정치 행정	정계순	대구	수성구청 복지국장
34	교육연구	허홍임	대구	대경대학교, 부교수	88	정치 행정	최광숙	서울	서울신문 기자
35	교육연구	황선희	서울	은평구 상암나래어린이집 원장	89	포교신행	이현경	서울	조계종 가피봉사단 상임이사
36	문화예술	강미선	서울	화가	90	포교신행	김경림	대구	백련암 신도회봉사
37	문화예술	강혜영	제주	사단법인 리본제주 이사장	91	포교신행	김경화	서울	전)교도관 35년근무
38	문화예술	김서정	경북	르네셀 플라워 대표	92	포교신행	김미숙	대구	직지사 중앙 봉사
39	문화예술	남정숙	서울	오무향갤러리관장	93	포교신행	김미정	서울	회사임원
40	문화예술	민혜성	서울	소울소리판 대표	94	포교신행	김복자	강원	농업회사 동호식품 대표
41	문화예술	박혜상	서울	전문 일러스트	95	포교신행	김수천	대전	개인사업
42	문화예술	양슬기	서울	국립국악고등학교 강사	96	포교신행	김신원	서울	신행선원 임원
43	문화예술	양은주	서울	한국미술협회 이사,	97	포교신행	송경희	경기	사찰봉사
44	문화예술	오세란	서울	동국대 동문 108합창단원	98	포교신행	양현숙	서울	포교사
45	문화예술	유수지	서울	애드윈 커뮤니케이션 대표	99	포교신행	양현애	경기	(주)글로벌스타 이사
46	문화예술	위영금	경기	행복여정문학 대표	100	포교신행	유자현	서울	사찰봉사
47	문화예술	이갑이	울산	차명상, 다도예절 및 전래놀이 교육사	101	포교신행	육종연	경기	현대해상 임원
48	문화예술	조보경	경기	한그루예술원 대표 원장	102	포교신행	이승빈	경북	e-노베이션 이사
49	문화예술	최은경	서울	조각보디자인	103	포교신행	장형순	서울	전)학원강사
50	법률	손연옥	서울	삼성전자, Senior Legal Counsel	104	포교신행	정영숙	제주	청소년 지도사
51	법률	유유희	충남	변호사 유유희 법률사무소	105	포교신행	정은경	경기	전)교사
52	법률	전현정	서울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106	포교신행	정은정	경기	전)군부대법당 봉사
53	보건의료	강영실	서울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107	포교신행	정진옥	서울	개인사업/불광사합창단원
54	보건의료	구명숙	대구	구명숙 신부인과 원장	108	포교신행	최봉영	서울	전)국립민속박물관 영어 도슨트

##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5.09.01~2025.11.3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b>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b>		류인숙(5차)	1,000,000	이혜원(11차)	1,000,000	박귀원(8차)	30,000	박현주(12차)	120,000
강영자	1,200,000	리영자(1차)	1,000,000	이화선(11차)	1,000,000	박정희(6차)	30,000	손은주(12차)	120,000
노인자	1,500,000	문명하(5차)	1,000,000	임현주(7차)	1,000,000	박혜옥(11차)	30,000	이갑이(12차)	120,000
원유자	300,000	박강자(6차)	1,000,000	장미숙(9차)	1,000,000	배순자(6차)	30,000	이나겸(12차)	120,000
이명순	300,000	박경자(5차)	1,000,000	전나미(7차)	1,000,000	변경아(8차)	20,000	이지혜(12차)	120,000
정진희	1,200,000	박근연(1차)	1,000,000	전영자(3차)	1,000,000	서은숙(6차)	30,000	정진옥(12차)	10,000
최희영	400,000	박명혜(2차)	1,000,000	정명자(8차)	1,000,000	손유림(11차)	30,000	조문현(12차)	120,000
피상순	3,000,000	박정애(8차)	1,000,000	정미령(8차)	1,000,000	손인애(9차)	40,000	허홍임(12차)	120,000
		박중균(6차)	1,000,000	정인향(11차)-1차분	500,000	송주의(9차)	30,000	홍경희(2차)	30,000
		박찬재(9차)	1,000,000	정진원(7차)	1,000,000	송혜진(8차)	30,000	황선희(12차)	120,000
		백경임(1차)	1,000,000	조명숙(8차)	1,000,000	신재영(6차)	30,000		
<b>(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b>		백미현(10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안인자(9차)	30,000		
구윤임	300,000	사기순(4차)	1,000,000	조은수(2차)	1,000,000	양경윤(5차)	30,000	<b>회원회비 (CMS)</b>	
김수향	200,000	서경애(12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오지연(4차)	30,000	강희출	15,000
김영희	1,200,000	서현숙(7차)	1,000,000	조정현(8차)	1,000,000	유진희(6차)	30,000	권은량	30,000
서혜선	300,000	서혜경(1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유화영(11차)	30,000	김연희	30,000
안기순	180,000	성민선(3차)	1,000,000	최경분(9차)	1,000,000	윤정선(6차)	30,000	김영희	30,000
양현정	300,000	성수현(12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윤효영(8차)	30,000	김정희	30,000
이영미	1,200,000	성영란(10차)	1,000,000	최수영(11차)	1,000,000	이시구(11차)	30,000	김학엽	15,000
최혜경	300,000	손미영(7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이영희(8차)	20,000	김현숙	30,000
		손미원(9차)	1,000,000	최윤정(3차)	1,000,000	이예숙(11차)	30,000	나경윤	15,000
		손인희(9차)	1,000,000	최해숙(4차)	1,000,000	이은경(11차)	10,000	노지숙	30,000
		송현주(4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이중용(조명숙)	30,000	도인희	30,000
		신용현(9차)	1,000,000	취환(11차)	1,000,000	이진희(11차)	30,000	민선정	30,000
		안수연(11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이혜숙(9차)	30,000	박말희	15,000
		안 영(10차)	1,000,000	홍소진(10차)	1,000,000	임정애(6차)	30,000	박문숙	30,000
		안애원(7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전영숙(8차)	30,000	박복순	5,000
		양숙자(5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정은희(6차)	30,000	박영재	30,000
		양정희(9차)	1,000,000	조은경(10차)	1,000,000	정지원(7차)	30,000	박지선	30,000
		양채화(7차)	1,000,000	박기옥(10차)	1,000,000	정혜정(9차)	30,000	박홍우	30,000
		어순아(9차)	1,000,000	이천희(10차)	1,000,000	조경숙(6차)	40,000	서혜정	30,000
		엄화원(10차)	1,000,000			조구자(9차)	30,000	선문스님	30,000
		오응옥(3차)	1,000,000	<b>여성불자08인회 회비</b>		조민기(11차)	30,000	송만순	60,000
		우인순(8차)	1,000,000	강명희(6차)	60,000	조정숙(6차)	30,000	안미경	20,000
		윤정로(9차)	1,000,000	강순주(11차)	30,000	조현숙(10차)	30,000	안서자	30,000
		이경자(5차)	1,000,000	강옥란(7차)	30,000	주찬옥(6차)	30,000	연명순	30,000
		이계경(4차)	1,000,000	강옥희(7차)	30,000	채진희(11차)	30,000	왕민영	30,000
		이기향(1차)	1,000,000	강희경(10차)	30,000	최복란(8차)	30,000	원유자	30,000
		이두영(10차)	1,000,000	계미향(8차)	30,000	최은희(9차_제주)	30,000	유명숙	30,000
		이명숙(7차)	1,000,000	구윤임(11차)	30,000	최희영(7차)	30,000	윤용옥	15,000
		이순이(3차)	1,000,000	권영순(11차)	20,000	한주영(10차)	30,000	이강희	15,000
		이시구(11차)	1,000,000	김수향(11차)	30,000	한채화(9차)	40,000	이교은	30,000
		이연숙(1차)	1,000,000	김순자(11차)	30,000	한혜원(7차)	30,000	이미선	90,000
		이영주(7차)	320,000	김양희(6차)	30,000	함양자(11차)	30,000	이숙자	30,000
		이원표(8차)	1,000,000	김영미(6차)	30,000	황남채(1차)	30,000	이승자	30,000
		이윤희(10차)	1,000,000	김옥주(7차)	30,000	황명자(6차)	30,000	이영재	30,000
		이은미(12차)	1,000,000	김청옥(7차)	30,000	황선희(5차)	30,000	이윤구	30,000
		이인옥(3차)	1,000,000	남동현(6차)	30,000	황수남(9차)	30,000	이윤희	30,000
		이인자(2차)	1,000,000	남동화(3차)	30,000	황치석(10차)	30,000	이재명(정원일)	30,000
		이재실(8차)	1,000,000	노희순(3차)	15,000			이재영	30,000
		이주연(6차)	1,000,000	문보경(6차)	30,000	<b>여성불자08인 회비 (온라인)</b>		이정애	30,000
		이주현(4차)	1,000,000	박경현(11차)	30,000	김명옥(11차)	120,000	이정호	30,000
		이태영(9차)	1,000,000			김수천(12차)	120,000	이진수(무관스님)	30,000
		이현아(10차)	1,000,000					이화선	30,000
		이현주(10차)	1,000,000						

#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5.09.01~2025.11.3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값이 감사드립니다.

신은영(자우스님) 30,000	<b>불교여성광장건립(불교르네상스의 꿈 2)_약정 잔액</b>  강순주(원유자 권선) 1,080,000 구윤임(11차) 990,000 권수형(4차) 360,000 김선옥 100,000 김연수 80,000 김용숙(7차) 1,080,000 김인숙고문 55,315,750 김종숙 110,000 박순(1차) 9,000,000 배영숙(10차) 1,080,000 변영숙(김여주자) 1,080,000 손미영(7차) 12,000 손미원(9차) 80,000 신병옥(신제정미소) 1,000,000 신수영(정진회 권선) 140,000 양경윤(5차) 1,800,000 유명숙(최혜경 권선) 80,000 유옥준(정진회 권선) 60,000 이시구 1,080,000 이기행(1차) 960,000 이영주(7차) 4,680,000 이영희(8차) 580,000 이인자고문 1,600,000 임지영(정진회 권선) 780,000 최윤옥(7차, 최혜경권선) 750,000 최정경(이영미 권선) 1,080,000 형난옥(6차) 7,080,000 홍소진(10차) 810,000	이연수 120,000	정혜자 30,000	박종덕 100,000
장길수 40,000		이영주 100,000	최다혜 30,000	보우법사 300,000
장영선 30,000		이정숙 100,000	한경숙 60,000	사기순 100,000
장윤실 30,000		이해남 120,000	한정미 300,000	서예식 100,000
전미옥 20,000		전경연 1,000,000		서우림 100,000
정명모 30,000		정대련 152,000		성민선 100,000
정숙인 90,000		정유진 30,000	<b>금강경 회향보시금</b>	송은주 300,000
정주현 30,000		정은희(회보광고) 500,000	김재란 100,000	양경윤 180,000
정희자 30,000		최순희 100,000	남동현 100,000	양정희 180,000
조귀자 30,000		함양자 4,020	노숙령 100,000	양현정 100,000
조여경 30,000		황수경 270,000	박종덕 100,000	원유자 100,000
조우상 30,000			박해옥 100,000	이기행 300,000
조정숙 40,000		<b>가족지원센터 회비 및 후원</b>	성영란 100,000	이순재 100,000
진승연 30,000		고국진 30,000	송은주 100,000	이영근 100,000
진여스님 90,000		고부진 60,000	양정희 100,000	이영주 300,000
최비안 30,000		고은자 20,000	어순아 100,000	이윤희 100,000
최소진 30,000		고채은 150,000	이기향 100,000	이은영 500,000
허양자 30,000		김영미 30,000	이은희 100,000	이정숙 180,000
한승우 30,000		노경자 60,000	이정호 100,000	이정순(현정) 100,000
허난영 30,000		여송이 15,000	정대련 100,000	이정호 100,000
허영숙 30,000		임순진 30,000	하수경 100,000	이해남 280,000
형난옥 30,000		조재란 30,000	황수경 100,000	이현정 100,000
홍숙기(진여스님) 30,000				전영숙 100,000
홍점례 15,000		<b>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b>	<b>창립25주년 기념보시금</b>	정경연 500,000
홍희숙 20,000		김여주 75,000	강순주 100,000	정대련 1,000,000
황유진 30,000	김옥경 90,000	강영자 100,000	정철재 100,000	
	송은주 175,000	강원지원 300,000	조은수 100,000	
<b>불교여성광장건립(CMS)</b>	신현옥 90,000	고은자 100,000	조정숙 50,000	
강인영 30,000	안형선 190,000	광용스님 300,000	최순희 180,000	
김형숙 30,000	황경자 175,000	김순자11차 50,000	피상순 300,000	
손미영 132,000		김명옥 50,000	하수경 100,000	
신수영 20,000	<b>고등동복지관 후원</b>	김복순 100,000	한숙희 100,000	
유옥준 90,000	권기란 180,000	김선숙 100,000	한정화 80,000	
이기향 90,000	강민경 40,000	김선옥 300,000	한주영 50,000	
최비안 90,000	권해영 30,000	김순철 100,000	함양자 50,000	
	김지현 60,000	김승묵 100,000	황경자 100,000	
<b>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b>	김혜미 60,000	김애주 300,000	황선화 100,000	
김선옥(6차) 300,000	김희정 400,000	김여주 280,000	황수경 300,000	
남동현 270,000	박영숙 90,000	김영희 100,000	황희숙 100,000	
보문회(강미중) 10,000,000	방효정 60,000	김의숙 300,000	황은복 50,000	
손성호(손연옥) 1,080,000	오혜진 30,000	김인숙 500,000	108인회 미니바자 2,000,000	
손연옥(12차) 1,080,000	유연서 30,000	김지영 50,000	5차 후원 300,000	
오연중(손연옥) 1,080,000	윤정은 30,000	김진 100,000	6차 후원 300,000	
임지영 30,000	이경미 30,000	남동현 280,000	7차 후원 300,000	
최윤옥(7차) 90,000	장혜연 80,000	노숙령 1,000,000	8차 후원 300,000	
홍소진(10차) 90,000		리영자 300,000	9차 후원 300,000	
황규집(정진회권선) 60,000		박문숙 100,010	10차 후원 300,000	
		박원자 80,000		
		박정하 100,000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